제3장 |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난봉	봉	
낭떠러지	낭	
설거지-하다	설겆다	
애달프다	애닯다	
오동-나무	머귀-나무	
자두	오얏	

제3장에서는 발음상 변화를 겪은 어휘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한 어휘를 다루고 있다. 언어의 발음, 형태,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 쓰이던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언어 현실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 규범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어휘가 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용례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20항은 현대에 쓰이지 않거나 매우 의고(擬古)적인 글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여 표준어에서 제외된 사어를 보인 것이다.

① '설겆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

이 쓰이지 않아 어간 '설겆-'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겆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했다.

② '애닯다'는 노래 등에서 '애닯다 어이하리'와 같이 쓰이기도 하나 이는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용언 역시 '애닯으니, 애닯아서, 애닯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현재는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애달프고, 애달프지, 애달파서, 애달픈'과 같이 활용에 제약이 없는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와 달리 '섧다'는 '서럽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

③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운향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의 뜻으로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④ '오얏'은 '오얏 이(李)' 등에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옛말의 흔적일 뿐, 현대 국어의 어휘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고어로 처리하였다.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가루-약	말-약	
구들-장	방-돌	
길품-삯	보행-삯	
까막-눈	맹-눈	
꼭지-미역	총각-미역	
나뭇-갓	시장-갓	
늙-다리	노-닥다리	

ㄱ	ㄴ	비 고
두껍-닫이	두껍-창	
떡-암죽	병-암죽	
마른-갈이	건-갈이	
마른-빨래	건-빨래	
메-찰떡	반-찰떡	
박달-나무	배달-나무	
밥-소라	식-소라	큰 놋그릇.
사래-논	사래-답	묘지기나 마름이 부쳐 먹는 땅.
사래-밭	사래-전	
삯-말	삯-마	
성냥	화-곽	
솟을-무늬	솟을-문(~紋)	
외-지다	벽-지다	
움-파	동-파	
잎-담배	잎-초	
잔-돈	잔-전	
조-당수	조-당죽	
죽데기	피-죽	'죽더기'도 비표준어임.
지겟-다리	목-발	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짐-꾼	부지-군(負持-)	
푼-돈	분-전/푼-전	
흰-말	백-말/부루-말	'백마'는 표준어임.
흰-죽	백-죽	

단순히 한자어라는 이유로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자 혹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 어휘 중 현대에 쓰이지 않는 말이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별도로 보였다.

① ‘가루약(--藥)’과 ‘말약(末藥)’ 중에서 ‘말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가루차/말차’, ‘계핏가루/계피말’ 등에서는 ‘말(末)’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② ‘잎담배’와 ‘잎초(-草)’ 중에서 ‘잎초’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엽초(葉草)’, ‘초담배(草--)’ 등에서는 ‘초(草)’가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③ ‘흰말’과 ‘백말(白-)’, ‘흰죽’과 ‘백죽(白粥)’ 중에서 ‘백말, 백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백마(白馬)’, ‘백나비(白--)’, ‘백모래(白--)’ 등에서는 ‘백(白)’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개다리-소반	개다리-밥상	
겸-상	맞-상	
고봉-밥	높은-밥	
단-벌	홑-벌	
마방-집	마바리-집	馬房~.
민망-스럽다/면구-스럽다	민주-스럽다	
방-고래	구들-고래	
부항-단지	뜸-단지	
산-누에	멧-누에	
산-줄기	멧-줄기/멧-발	
수-삼	무-삼	
심-돋우개	불-돋우개	

ㄱ	ㄴ	비 고
양-파	둥근-파	
어질-병	어질-머리	
윤-달	군-달	
장력-세다	장성-세다	
제석	젯-돗	
총각-무	알-무/알타리-무	
칫-솔	잇-솔	
포수	총-댕이	

앞의 제21항과 대립적인 규정이다. 제21항에서 단순히 한자어라서가 아니라 쓰임이 적어서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어라고 하여도 쓰임이 없으면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이다. 조항의 예들은 고유어라도 현실 언어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이라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① 두 글자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겸상(兼床)'과 한 글자가 고유어인 '맞상(-床)' 중에서 '맞상'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② '단벌(單-)'과 '홑벌' 중에서 '홑벌'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홑벌'이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이다. '홑벌'이 비표준어인 것과는 달리 '단자음/홑자음', '단탁자/홑탁자', '단비례/홑비례', '단수(單數)/홑수(-數)'에서는 '홑'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③ '총각무(總角-)'와 '알타리무' 중에서 '알타리무'는 간혹 쓰이나 그 쓰임이 '총각무'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각김치'만을 표준어로 삼고 '알타리김치'는 표준어에서 제외한다.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ㄱ	ㄴ	비 고
멍게	우렁쉥이	
물-방개	선두리	
애-순	어린-순	

제23항은 방언이라도 매우 자주 쓰여 표준어만큼 혹은 표준어보다 훨씬 더 널리 쓰이게 된 말은 표준어로 새로이 인정한 것이다.

① '멍게'와 '우렁쉥이' 중에서 '우렁쉥이'가 전통적 표준어였으나,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멍게'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전통적 표준어인 '우렁쉥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물방개'와 '선두리'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② '애순'과 '어린순' 중에서 '어린순'이 전통적 표준어였으나, '애순'이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애순'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애벌레'를 '어린벌레'라고 하는 것은 비표준어이다. 현실 언어에서 '어린벌레'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밑-머리	귓-머리	
까-뭉개다	까-무느다	
막상	마기	
빈대-떡	빈자-떡	
생인-손	생안-손	준말은 '생-손'임.
역-겹다	역-스럽다	
코-주부	코-보	

제24항은 제23항과 마찬가지로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은 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 다르다.

① 방언형이었던 '까뭉개다'가 표준어였던 '까무느다'보다 널리 쓰이므로 '까뭉개다'를 표준어로 삼고 '까무느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표준어는 개별적으로 쓰임을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비표준어와 유사한 형태가 모두 비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까무느다'는 비표준어지만 '무느다'는 현실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② 과거 표준어였던 '빈자떡'은 방언이었던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떡'의 한자 '병(餠)'을 쓴 '빈자병'도 비표준어이다.

③ 방언이었던 '역겹다'가 표준어였던 '역스럽다'보다 널리 쓰이므로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고 '역스럽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고난겹다, 자랑겹다, 원망겹다' 등은 '겹다'가 결합한 형태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비표준어로 처리하였고, '-스럽다'가 결합한 '고난스럽다, 자랑스럽다, 원망스럽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④ '생으로 앓게 된 손(가락)'이라는 뜻의 '생안손'은 그 방언형이었던 '생인손'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으므로 '생인손'을 표준어로 삼았다. 손가락의 모양이 새

앙(생강)처럼 생긴 '새앙손이'(제25항)와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게끔	-게시리	
겸사-겸사	겸지-겸지/겸두-겸두	
고구마	참-감자	
고치다	낫우다	병을 ~.
골목-쟁이	골목-자기	
광주리	광우리	
괴통	호구	자루를 박는 부분.
국-물	멀-국/말-국	
군-표	군용-어음	
길-잡이	길-앞잡이	'길라잡이'도 표준어임.
까치-발	까치-다리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모	말뚝-모	꼬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
나룻-배	나루	'나루[津]'는 표준어임.
납-도리	민-도리	
농-지거리	기롱-지거리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임.
다사-스럽다	다사-하다	간섭을 잘하다.
다오	다구	이리 ~.
담배-꽁초	담배-꼬투리/담배-꽁치/담배-꽁추	

ㄱ	ㄴ	비 고
담배-설대	대-설대	
대장-일	성냥-일	
뒤져-내다	뒤어-내다	
뒤통수-치다	뒤꼭지-치다	
등-나무	등-칡	
등-때기	등-떠리	'등'의 낮은말.
등잔-걸이	등경-걸이	
떡-보	떡-충이	
똑딱-단추	딸꼭-단추	
매-만지다	우미다	
먼-발치	먼-발치기	
며느리-발톱	뒷-발톱	
명주-붙이	주-사니	
목-메다	목-맺히다	
밀짚-모자	보릿짚-모자	
바가지	열-바가지/열-박	
바람-꼭지	바람-고다리	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
반-나절	나절-가웃	
반두	독대	그물의 한 가지.
버젓-이	뉘연-히	
본-받다	법-받다	
부각	다시마-자반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	
부스러기	부스럭지	
부지깽이	부지팽이	
부항-단지	부항-항아리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기 위하여

ㄱ	ㄴ	비 고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비켜-덩이	옆-사리미	김맬 때에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
빙충-이	빙충-맞이	작은말은 '뱅충이'.
빠-뜨리다	빠-치다	'빠트리다'도 표준어임.
뻣뻣-하다	왜긋다	
뽐-내다	느물다	
사로-잠그다	사로-채우다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살-풀이	살-막이	
상투-쟁이	상투-꼬부랑이	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새앙-손이	생강-손이	
샛-별	새벽-별	
선-머슴	풋-머슴	
섭섭-하다	애운-하다	
속-말	속-소리	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준어임.
손목-시계	팔목-시계/팔뚝-시계	
손-수레	손-구루마	'구루마'는 일본어임.
쇠-고랑	고랑-쇠	
수도-꼭지	수도-고동	
숙성-하다	숙-지다	
순대	골-집	
술-고래	술-꾸러기/술-부대/술-보/술-푸대	
식은-땀	찬-땀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신기-하다'도 표준어임.
쌍동-밤	쪽-밤	

ㄱ	ㄴ	비 고
쏜살-같이	쏜살-로	
아주	영판	
안-걸이	안-낚시	씨름 용어.
안다미-씌우다	안다미-시키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안쓰럽다	안-슬프다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앉은뱅이-저울	앉은-저울	
알-사탕	구슬-사탕	
암-내	곁땀-내	
앞-지르다	따라-먹다	
애-벌레	어린-벌레	
얕은-꾀	물탄-꾀	
언뜻	펀뜻	
언제나	노다지	
얼룩-말	워라-말	
열심-히	열심-으로	
입-담	말-담	
자배기	너벅지	
전봇-대	전선-대	
쥐락-펴락	펴락-쥐락	
-지만	-지만서도	← -지마는.
짓고-땡	지어-땡/짓고-땡이	
짧은-작	짜른-작	
찹-쌀	이-찹쌀	
청대-콩	푸른-콩	
칡-범	갈-범	

제17항과 같은 취지로 단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17항이 발음 변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 조항은 어휘의 기원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① '-게끔'과' '-게시리' 중 '-게시리'는 꽤 많이 쓰이는 편이나, 방언형으로 보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더구나 이들과 같은 의미의 어미로 '-도록'이 널리 쓰이고 있어 '-게끔'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고구마'는 '감자'보다 맛이 달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참-'과 감자'를 합한 '참감자'를 '고구마'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굳이 '참감자'를 사용하여 현실 언어를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고치다'와 '낫우다' 중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다.

④ '나루'는 '강이나 내 등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그러나 '나룻배'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등칡'은 '등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쥐방울덩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덩굴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⑥ '나절가웃'은 '반나절'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하룻낮의 4분의 3쯤 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⑦ '부각'과 '다시마자반' 중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각'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런데 '김'을 사용한 음식인 '김부각'과 '김자반'은 서로 다른 음식으로, 두 단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⑧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다. 그러나 '오락가락'이나 '들락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기 때문에, 더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쥐락펴락/펴락쥐락'에서 '쥐락펴락'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⑨ '빠뜨리다'와 '빠치다' 중에서는 '빠뜨리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다만, 표준어 규정의 제26항에 따라 '-뜨리다'와 함께 '-트리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므로 '빠트

리다'도 표준어이다.

⑩ '신기롭다'와 '신기스럽다' 중에서는 '신기롭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지혜롭다'와 '지혜스럽다' 중에서도 '지혜롭다'만이 표준어이다. 이와는 반대로 '바보롭다/바보스럽다', '간사롭다/간사스럽다' 중에서는 '-스럽다' 형태가 표준어이다. 한편 '명예롭다/명예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신기롭다'와 '신기하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⑪ '안절부절못하다'와 '안절부절하다'에서, '안절부절하다'는 부정어를 빼고 쓰면서도 의미는 반대가 되지 않고 부정어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특이한 용법인데, 오용(誤用)으로 판단되어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칠칠치 못하다/않다'의 경우에도, '칠칠하다'가 '칠칠치 못하다/않다'는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부정어가 쓰인 형태만을 표준으로 삼았다. 다만 '칠칠하다'는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는 표준어이다.

⑫ '-지만'과 '-지만서도' 중에서 '-지만서도'도 '-게시리'와 마찬가지로 꽤 널리 쓰이는 편이나, 방언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복수 표준어	비 고
가는-허리/잔-허리	
가락-엿/가래-엿	
가뭄/가물	
가엾다/가엽다	가엾어/가여워, 가엾은/가여운.

복수 표준어	비 고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개수-통/설거지-통	'설겆다'는 '설거지하다'로.
개숫-물/설거지-물	
갱-엿/검은-엿	
-거리다/-대다	가물-, 출렁-.
거위-배/횟-배	
것/해	내 ~, 네 ~, 뉘 ~.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줏-간	'고깃-관, 푸줏-관, 다림-방'은 비표준어임.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교정-보다/준-보다	
구들-재/구재	
귀퉁-머리/귀퉁-배기	'귀퉁이'의 비어임.
극성-떨다/극성-부리다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기승-떨다/기승-부리다	
깃-저고리/배내-옷/배냇-저고리	
꼬까/때때/고까	~신, ~옷.
꼬리-별/살-별	
꽃-도미/붉-돔	
나귀/당-나귀	
날-걸/세-뿔	윷판의 짤밭 다음의 셋째 밭.
내리-글씨/세로-글씨	
넝쿨/덩굴	'덩쿨'은 비표준어임.
녘/쪽	동~, 서~.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복수 표준어	비 고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늦-모/마냥-모	← 만이앙-모.
다기-지다/다기-차다	
다달-이/매-달	
-다마다/-고말고	
다박-나룻/다박-수염	
닭의-장/닭-장	
댓-돌/툇-돌	
덧-창/겉-창	
독장-치다/독판-치다	
동자-기둥/쪼구미	
돼지-감자/뚱딴지	
되우/된통/되게	
두동-무니/두동-사니	윷놀이에서, 두 동이 한데 어울려 가는 말.
뒷-갈망/뒷-감당	
뒷-말/뒷-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딴-전/딴-청	
땅-콩/호-콩	
땔-감/땔-거리	
-뜨리다/-트리다	깨-, 떨어-, 쏟-.
뜬-것/뜬-귀신	
마룻-줄/용총-줄	돛대에 매어 놓은 줄. '이어줄'은 비표준어임.
마-파람/앞-바람	
만장-판/만장-중(滿場中)	
만큼/만치	

복수 표준어	비 고
말-동무/말-벗	
매-갈이/매-조미	
매-통/목-매	
먹-새/먹음-새	'먹음-먹이'는 비표준어임.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멱-통/산-멱/산-멱통	
면-치레/외면-치레	
모-내다/모-심다	모-내기, 모-심기.
모쪼록/아무쪼록	
목판-되/모-되	
목화-씨/면화-씨	
무심-결/무심-중	
물-봉숭아/물-봉선화	
물-부리/빨-부리	
물-심부름/물-시중	
물추리-나무/물추리-막대	
물-타작/진-타작	
민둥-산/벌거숭이-산	
밑-층/아래-층	
바깥-벽/밭-벽	
바른/오른[右]	~손, ~쪽, ~편.
발-모가지/발-목쟁이	'발목'의 비속어임.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임.
변덕-스럽다/변덕-맞다	
보-조개/볼-우물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행-내기'는 비표준어임.

복수 표준어	비 고
볼-따구니/볼-퉁이/볼-때기	'볼'의 비속어임.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부치개-질'은 비표준어임.
불똥-앉다/등화-지다/등화-앉다	
불-사르다/사르다	
비발/비용(費用)	
뾰두라지/뾰루지	
살-괭이/삵	삵-피.
삽살-개/삽사리	
상두-꾼/상여-꾼	'상도-꾼, 향도-꾼'은 비표준어임.
상-씨름/소-걸이	
생/새앙/생강	
생-뿔/새앙-뿔/생강-뿔	'쇠뿔'의 형용.
생-철/양-철	1. '서양철'은 비표준어임. 2. '生鐵'은 '무쇠'임.
서럽다/섧다	'설다'는 비표준어임.
서방-질/화냥-질	
성글다/성기다	
-(으)세요/-(으)셔요	
송이/송이-버섯	
수수-깡/수숫-대	
술-안주/안주	
-스레하다/-스름하다	거무-, 발그-.
시늉-말/흉내-말	
시새/세사(細沙)	
신/신발	
신주-보/독보(櫝褓)	
심술-꾸러기/심술-쟁이	

복수 표준어	비 고
씁쓰레-하다/씁쓰름-하다	
아귀-세다/아귀-차다	
아래-위/위-아래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앉음-새/앉음-앉음	
알은-척/알은-체	
애-갈이/애벌-갈이	
애꾸눈-이/외눈-박이	'외대-박이, 외눈-퉁이'는 비표준어임.
양념-감/양념-거리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어기여차/어여차	
어림-잡다/어림-치다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얼렁-뚱땅/엄벙-뗑	
여왕-벌/장수-벌	
여쭈다/여쭙다	
여태/입때	'여직'은 비표준어임.
여태-껏/이제-껏/입때-껏	'여직-껏'은 비표준어임.
역성-들다/역성-하다	'편역-들다'는 비표준어임.
연-달다/잇-달다	
엿-가락/엿-가래	
엿-기름/엿-길금	
엿-반대기/엿-자박	
오사리-잡놈/오색-잡놈	'오합-잡놈'은 비표준어임.
옥수수/강냉이	~떡, ~묵, ~밥, ~튀김.

복수 표준어	비 고
왕골-기직/왕골-자리	
외겹-실/외올-실/홑-실	'홑겹-실, 올-실'은 비표준어임.
외손-잡이/한손-잡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우레/천둥	우렛-소리/천둥-소리.
우지/울-보	
을러-대다/을러-메다	
의심-스럽다/의심-쩍다	
-이에요/-이어요	
이틀-거리/당-고금	학질의 일종임.
일일-이/하나-하나	
일찌감치/일찌거니	
입찬-말/입찬-소리	
자리-옷/잠-옷	
자물-쇠/자물-통	
장가-가다/장가-들다	'서방-가다'는 비표준어임.
재롱-떨다/재롱-부리다	
제-가끔/제-각기	
좀-처럼/좀-체	'좀-체로, 좀-해선, 좀-해'는 비표준어임.
줄-꾼/줄-잡이	
중신/중매	
짚-단/짚-뭇	
쪽/편	오른~, 왼~.
차차/차츰	
책-씻이/책-거리	
척/체	모르는 ~, 잘난 ~ .
천연덕-스럽다/천연-스럽다	

복수 표준어	비 고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철-때기'는 비표준어임.
추어-올리다/추어-주다	
축-가다/축-나다	
침-놓다/침-주다	
통-꼭지/통-젖	통에 붙은 손잡이.
파자-쟁이/해자-쟁이	점치는 이.
편지-투/편지-틀	
한턱-내다/한턱-하다	
해웃-값/해웃-돈	'해우-차'는 비표준어임.
혼자-되다/홀로-되다	
흠-가다/흠-나다/흠-지다	

제18항과 같은 취지로 복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표준어가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산물이라는 생각을 불식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복수 표준어는 어감의 차이나 의미 혹은 용법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 대치하였을 때 어색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어휘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에도 추가 사정을 거쳐 복수 표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① '가뭄/가물' 중에서는 '가뭄'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어 가고 있으나, "가물에 콩 나듯"이라는 속담에서 보듯 '가물'도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가뭄철/가물철', '왕가뭄/왕가물' 등도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② '가엾다/가엽다'는 "아이, 가엾어라."와 "아이, 가여워."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두 가지 활용형이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서럽다/섧다'나 '여쭙다/여쭈다'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 다 같은 이유에서이다. '서럽게 운다'와 '섧게

운다', '여쭈워라'와 '여쭈어라(여쭤라)'가 다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활용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가엾다'는 '가엾어, 가엾으니'와 같이 활용하고 '가엽다'는 '가여워, 가여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그리고 '서럽다'는 '서러워, 서러우니'와 같이 활용하고 '섧다'는 '설워, 설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여쭙다'는 '여쭈워, 여쭈우니'와 같이 활용하고, '여쭈다'는 '여쭈어(여쭤), 여쭈니'와 같이 활용한다.

③ 종래에는 '-거리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던 것을 현실 언어에 따라 '-거리다/-대다'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 언어에서 그러한 어형이 나타날 때로 한정된다. 가령 '나대다'는 '나거리다'가 되지 않는데, 이는 '나거리다'라는 말이 아예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늦모/마냥모'의 '마냥모'는 종래 '만이앙모(晩移秧-)'에서 온 말이라 하여 '만양모'로 적었던 것이나 현대에는 어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므로 원형을 살리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⑤ '되우/된통/되게'의 '되우'는 이제 그 쓰임이 활발치 못한 형편이기는 하나 고어로 처리하기에는 이르다 하여 복수 표준어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⑥ '땔감/땔거리'는 불을 때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말하는데, 이와 비슷한 예로 '바느질감/바느질거리', '반찬감/반찬거리', '양념감/양념거리', '일감/일거리'가 더 있다. 그러나 모든 '거리'와 '감'이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거리'는 '국감'이라고 하지 않고 '장난감'은 '장난거리'라고 하지 않는다.

⑦ '-뜨리다/-트리다'는 '-거리다/-대다'와 마찬가지로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들 사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는 듯도 하나 그리 뚜렷하지 않다.

⑧ '만큼'과 '만치'는 복수 표준어이고 의존 명사와 조사 양쪽으로 쓰이는 점도 같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만치 보상을 받다', '노력만큼/만치 보상을 받다'와 같이 쓴다.

⑨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형태상으로 유사한 '일찌감치/일찌거니/일찍이', '널찌감치/널찍이', '느지감치/느지거니/느직이' 등과 같은 말도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 중 '일찍이'는 '일찌감치/일찌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고, '느직이'도 '느지감치/느지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다.

⑩ '밭-'은 '바깥'의 준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바깥마당/밭마당, 바깥부모/밭부모, 바깥사돈/밭사돈, 바깥상제/밭상제, 바깥주인/밭주인'에서처럼 복합어 안에서만 '바

깥' 대신에 쓸 수 있다. 예컨대 '바깥에 나가다'를 '밭에 나가다'라고 할 수는 없다. 현실 언어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⑪ '벌레/버러지'는 복수 표준어이나 '벌거지/벌러지'는 비표준어이다.

⑫ '-(으)세요/-(으)셔요, 이에요/이어요'에서 전통 어법은 '-(으)세요, 이에요'였는데, 광복 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쓴 이후로 보편화되었다. 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았다.

⑬ '신발'은 단음절인 '신'만으로는 전달이 모호할 때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말로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⑭ '알은척/알은체'의 '알은'은 'ㄹ' 불규칙 용언인 '알다'의 활용형이므로 '안'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알은'으로 굳어 버린 관용을 존중해서 '알은'형을 그대로 둔 것이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임'이라는 뜻과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이라는 뜻이 있는 '알은척/알은체'는,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아는 척/체'와는 구별된다.

⑮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혹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이때 이 말들은 자동사로 쓰인다. 그러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이어서 달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잇달다'만 표준어이다. 이때 '잇달다'는 타동사로 쓰인다. 그러므로 '화물칸을 객차 뒤에 잇달았다'와 같은 예에서 '잇달다' 대신에 '연달다, 잇따르다'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⑯ '천둥'과 동의어인 '우레'는 본래 '우르다'의 어간 '우르-'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현대에도 꽤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종래에는 '우레'를 한자어로 보아 '우뢰(雨雷)'라 쓰기도 했으나 이는 발음상의 혼동으로 보아 표준어로 취하지 않았다.

⑰ '이에요/이어요'는 복수 표준형이다. 예전에는 '이에요'를 많이 썼는데, '이어요'도 널리 쓰이므로 표준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요'와 '이어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이에요'와 '이어요'는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든다. '아니다'에는 '-에요', '-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녜요)', '아니어요(아녀요)'가 되며 '이어요'와 '이에요'가 붙어 줄

어든 ‘아니여요’, ‘아니예요’는 틀린 표기이다.

(1) 받침이 있는 인명

ㄱ. 영숙이+이에요→영숙이이에요→영숙이예요

ㄴ. 영숙이+이어요→영숙이이어요→영숙이여요

ㄷ. 김영숙+이에요→김영숙이에요

(2) 받침이 없는 인명

ㄱ. 철수+이에요→철수이에요→철수예요

ㄴ. 철수+이어요→철수이어요→철수여요

(3) 받침이 있는 명사

ㄱ. 장남+이에요→장남이에요

ㄴ. 장남+이어요→장남이어요

(4) 받침이 없는 명사

ㄱ. 손자+이에요→손자이에요→손자예요

ㄴ. 손자+이어요→손자이어요→손자여요

(5) 아니다

ㄱ. 아니-+-에요→아니에요(→아녜요)

ㄴ. 아니-+-어요→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여요/아니예요’는 틀린 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표준어’를 사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표준어가 발표되었으며 그 목록은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2011년(39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기에	~길래	'~기에'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간지럽게 하다.	복수 표준어
괴발개발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거추장스럽게 자꾸 여기저기 걸리거나 닿다.	별도 표준어
끼적거리다	끄적거리다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자꾸 막 쓰거나 그리다.	별도 표준어
날개	나래	흔히 문학 작품 따위에서, '날개'를 이르는 말. '날개'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	별도 표준어
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	복수 표준어
냄새	내음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별도 표준어
눈초리	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별도 표준어
두루뭉술하다	두리뭉실하다	특별히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별도 표준어
목물	등물	상체를 굽혀 엎드린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물로 씻는 일.	복수 표준어
떨어뜨리다	떨구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	별도 표준어
뜰	뜨락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깃들어 있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만날	맨날	매일같이 계속하여서.	복수 표준어
맨송맨송	맨숭맨숭/ 맹숭맹숭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에 털이 없어 반반한 모양. /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이 벗어져 반반한 모양.	별도 표준어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별도 표준어
메우다	메꾸다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보내다.	별도 표준어
묏자리	묫자리	뫼를 쓸 자리. 또는 쓴 자리.	복수 표준어

바동바동	바둥바둥	덩치가 작은 것이 매달리거나 자빠지거나 주저앉아서 자꾸 팔다리를 내저으며 움직이는 모양. '바동바동'보다 큰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복사뼈	복숭아뼈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	복수 표준어
새치름하다	새초롬하다	조금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	별도 표준어
세간	세간살이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복수 표준어
손자(孫子)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쌉싸래하다	쌉싸름하다	조금 쓴 맛이 있는 듯하다.	복수 표준어
아옹다옹	아웅다웅	대수롭지 아니한 일로 서로 자꾸 다투는 모양. '아옹다옹'보다 큰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야멸치다	야멸차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거의 없다.	별도 표준어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겉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다.	별도 표준어
연방	연신	잇따라 자꾸.	별도 표준어
오순도순	오손도손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좋게 지내는 모양.	별도 표준어
자장면	짜장면	중국요리의 하나.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다.	복수 표기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몸살이나 감기 따위로 몸이 무겁고 거북하다.	별도 표준어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조금 성가실 정도로 은근히 자꾸 귀찮게 굴다.	별도 표준어
태껸	택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 가운데 하나. 유연한 동작을 취하며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손질 · 발질을 하여 그 탄력으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한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 무형 문화재 제76호.	복수 표기
고운대	토란대	토란의 줄기. 주로 국거리로 쓴다.	복수 표준어
품세	품새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	복수 표기
허섭스레기	허접쓰레기	좋은 것이 빠지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물건.	복수 표준어
힁허케	휭하니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별도 표준어
토담	흙담	흙으로 쌓아 만든 담.	복수 표준어

2014년(13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개개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별도 표준어
구안괘사	구안와사	얼굴 신경 마비 증상.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이다.	복수 표준어
굽실	굽신	고개나 허리를 가볍게 구푸렸다 펴는 모양.	복수 표준어
꾀다	꼬시다	'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장난감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별도 표준어
눈두덩	눈두덩이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복수 표준어
딴죽	딴지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별도 표준어
삐치다	삐지다	성나거나 못마땅해서 마음이 토라지다.	복수 표준어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별도 표준어
섬뜩	섬찟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별도 표준어
속병	속앓이	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별도 표준어
작장초	초장초	괭이밥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0~3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세 갈래로 갈라지며, 작은 잎은 거꾸로 된 심장 모양이다. 7~8월에 노란 꽃이 산형(繖形) 화서로 꽃줄기 끝에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를 맺는다. 어린잎과 줄기는 식용한다. 논밭이나 길가에 나는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복수 표준어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별도 표준어
2015년(11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고 싶다	~고프다	'~고 싶다'가 줄어든 말.	복수 표준어
가오리연	꼬리연	긴 꼬리를 단 연.	별도 표준어
노라네 동그라네 조그마네 …	노랗네 동그랗네 조그맣네 …	'ㅎ' 불규칙 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을 탈락시키지 않아도 됨.	복수 표준형

마을	마실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복수 표준어
마 마라 마요	말아 말아라 말아요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을 탈락시키지 않아도 됨.	복수 표준형
의논	의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별도 표준어
예쁘다	이쁘다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복수 표준어
이키	이크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키'보다 큰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잎사귀	잎새	나무의 잎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별도 표준어
차지다	찰지다	'차지다'의 원말.	복수 표준어
푸르다	푸르르다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2016년(6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거방지다	걸판지다	① 매우 푸지다.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별도 표준어
건울음	겉울음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② 마음에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별도 표준어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 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 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실몽당이	실뭉치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	별도 표준어
에는	엘랑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다루어 온 '엘랑'을 표준형으로 인정함. '엘랑' 외에도 'ㄹ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복수 표준형
주책없다	주책이다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다루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주책이다'는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복수 표준형

2017년(5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꺼림칙하다	꺼림직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복수 표준어
께름칙하다	께름직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꽤 있다.	복수 표준어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추켜올리다'를 표준어로 인정함.	복수 표준어
치켜세우다	추켜세우다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추켜세우다'를 표준어로 인정함.	복수 표준어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치켜올리다	① 옷이나 물건, 신체 일부 따위를 위로 가뜬하게 올리다. ②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	복수 표준어